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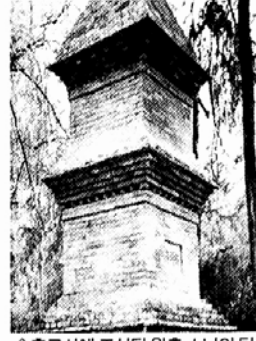
◇혜초 스님이 황제의 칙령을 받아 기우제를 지냈던 선유사전경.



◇지인 스님이 불경을 번역했던 취미사의 석불.



◇종남산 신라왕자대의 전경.



◇홍교사에 조성된 원족 스님의 탑.

# 1천여 신라스님 중국으로 간 까닭은

## 중국 명산사찰과 해동승려 변인석 외 2인 공저

〈경전전통〉, 〈삼국유사〉, 〈고승전〉 등 문헌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유학했던 스님은 약 130여명. 하지만 이들은 중국불교의 법맥에 이름을 올린 스님들이다. 장국동 씨 등 중국 사학자들에 따르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구법스님들까지 합하면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 들어가 경전을 번역하거나 연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스님도 있다. 대표적인 스님이 혜초와 원족이다.

한국사학회(회장 최근영)는 입당구법 스님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7명의 조

사단을 구성. 지난 98년 종남산 답사시작으로 매년 구화산, 천태산, 보타산 등 중국 불교의 5대 명산을 중심으로 신라스님들의 발자취와 유적을 조사했다.

중국불교의 대표적 성지 종남산에는 신라의 어떤 스님이 어느 사찰에서 정진했을까. 종남산은 중국 불교의 6대 종파가 발원했을 정도로 중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산으로 꼽힌다. 이 산은 입당 구법 스님들이 한 번쯤 거쳐갔다 할 정도로 신라 스님들의 대표적 구법도량이었다. 혜초 스님이 당 대종(代宗)의 칙령을 받아 기우제를 지냈던 선유사의 옥녀담을 비롯해 자장 원족 스님이 수행 정진했던 운제사, 지인 스님이 불경을 번역

했던 취미사, 현장법사가 역경을 열었던 홍복사를 비롯해 지상사 정영사 운제사 옥화사 장경사 등 신라 스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사찰만해도 30여 곳 가운데 10여 곳에 이른다.

### 종남산 등 5대 명산 답사 입당구법 스님 행적 조명

특히 성수사에는 현족 스님을 비롯해 인광·허운·정해·내과 스님 등 신라의 역대 고승들이 거쳐갔으며, 화엄학의 중심지였던 지상사에는 의상 스님이 8년간 주석했다고 한다.

글쓴이가 22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종남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행과 역경 등 신라 스님들의 구법열정이 가장 많이 녹

아 있기 때문이다. 종남산에 온 신라 스님들은 강남과 사천 그리고 오대산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 점에서 종남산은 한 중불교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또 천태산은 신라 스님들이 거주하였던 신라원(新羅院)이 있었을 정도로 남조에서 북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많이 찾았다.

이밖에도 이 책은 구화산, 송산 등의 중국 명산의 사찰을 열거하여 신라 스님들의 행적을 낱말로 추적하며 분석한다.

변인석 교수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알려진 곳을 직접 답사하여 정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골짜기 중국의 9개 산의 신라 스님들의 발자취도 조사해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값 1만 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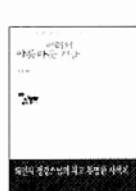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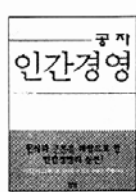
▲생명을 노래하는 개구리(심재한 지음, 다른세상) = 우리 나라에는 6과 17종의 양서류가 있으며 크게 나누면 개구리와 도롱뇽이다. 이 책에서는 17종류의 개구리와 도롱뇽의 생김새와 몸 구조, 살아가는 생태습성, 한 종 한 종의 자세한 삶, 자연 속에서 양서류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나간다. 값 1만5천원.

▲구렁이들의 집(최인석 지음, 창작과비평사) = 〈내 영혼의 우물〉로 독자들과 주목을 받은 최인석 씨의 다섯 번째 소설집이다. 완전무결한 중심을 찾다가 길을 잃고 꿈만 남은 큰 아비 앞에서 '나'는 멀더듬음을 깨게 된다는 내용의 표제작 '구렁이들의 집'을 비롯해 '잉어 이야기', '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 '포로와 꽃게', '봉천동 그 찬란하던 날' 등 다섯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공자 인간경영(주선 지음, 증명) = 공자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현대 최고 경영자가 실천해야 할 비즈니스 처세법을 다룬 책. 글쓴이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정보와 기술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생(生)과 사(死)는 하늘의 뜻이지만, 사업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간경영의 기본 축이 된다고 공자의 사상을 경영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값 7천5백원.

▲모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정경 지음, 양문) = 기(氣)의 세계에 대해 경영학과 교수가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책. 글쓴이는 우주의 인성에 관해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진리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기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도 살핀다. 값 8천7백원.

▲버려서 아름다운 것들(정경 스님 지음, 하늘) = 〈참선요가〉 등 건강법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정경 스님이 내놓은 수상집. 글쓴이는 불교와 참선이 같은 느낌을 주듯 참선과 좌선도 같은 의미로 잘못 이해하기 십상이라며 자신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체로 풀어낸다. 값 8천원.



### 제3수행법 · 청빈사상 특집

#### '불교와 문화' 등 불교계 잡지 불호

월간지 · 계간지를 포함한 불교잡지 불호가 나왔다. 울 불에 나온 잡지들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문은 수행법과 신행 그리고 불교문화 등 최근 불교계의 주요 관심사들이다.

〈불교와 문화〉는 '제3수행법 이렇게 생각하다'를 주제로 화두선 수행자가 본 제3수행법의 문제점, 이제는 중단과 선승들이 말할 때다 등 제3수행법의 명과 암을 조명하고 있다. 특집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와 발전적 비판'과 '성낙주의 문화재 소실' 등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모색하는 〈불교와 문화〉다운 기획이라 할 만한 것들이다.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면서 출발한 월간 〈선문화〉는 청빈의 사상 선승에게 배워라, '인도 사람들의 선정생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인도의 수행자들' 등 네 분야로 나눠 청빈의 사상을 월간 〈불광〉은 마공 스님의 출가기를 비롯해 특집으로 출가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한편 만해 스님이 조선 청년을 계몽하기 위해 1918년 펴낸 잡지 〈유심(唯心)〉이 83년 만에 시 전문 계간지로 복간돼 눈길을 끈다. 복간호에는 특집 '만해와의 특별한 만남', 중견 문인들의 좌담 '21세기 문학을 전망한다', '만해 인물 탐구' 등을 통해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경림, 김원형, 최하림, 오세영 씨 등의 시와 시조를 실고 있다.

김중근 기자

### 성냄과 미움 다스리는 생활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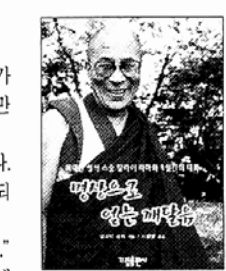
#### 지창영 옮김 '명상으로 얻는 깨달음'

티베트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은둔하며 수행하고 있는 스님과 목자가 우연히 만나 나누는 이야기다.

산 속에서 수행하며 혼자 살고 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목자가 스님이 살고 있는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무얼 하십니까."

"인내에 관한 명상이네" 목자는 되물어서다가 스님에게 "스님, 지옥에 가십시오"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동굴 속에서 화난 목소리가 되돌아 온다. "뭐라고, 자네나 지옥에 떨어지게." 목자는 웃으면서 인내에 관해 명상한다는 분이 어떻게 그리 쉽게 화를 낼 수



있느냐고 일깨워 주었다.

이 짧은 이야기에는 인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 함축되어 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자제하고 고요한 상태로 대할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인내와 보살의 삶에 대한 4일간의 가르침을 담은 〈명상으로 얻는 깨달음〉(지창영 옮김, 가림)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생활 지침서다.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산티데바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주제로 설하고 있다.

산티데바는 글의 첫머리에서 혼수간의 분노가 일생동안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고 그 치유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이상적 여성상 '보살의 삶'

#### 불교와 여성

이영자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정) 교수. 천태학을 전공했지만 불교계의 여성강의는 대개 그의 몫이었다. 한국 여성학회장을 맡아 활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교수가 정년 퇴임 기념으로 책을 냈다. 〈불교와 여성〉(민족사)이 바로 그 책이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여성관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초기교단 · 한국의 여성사 · 여성 성불론 등 다방면에서 탐구한 여성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고 있다.

이 책은 또 여성 차별에 대한 한국 불교의 태도도 비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불제자를 바라보는 통념'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책 곳곳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병든 사상이 보살정신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것이 이 책의 진정한 메시지다. 값 9천7백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 책방 역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다인하우스
2	금강경 강의	혜 거	부인스튜디오
3	봄 여름 가을 겨울	황영 휘	이 레
4	절음 기차게 잘하는 법	정 건	벗달의마을
5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호 립
6	선망일기	지 허	여사야문
7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8	영가천도	우 립	호 립
9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연	장 경 각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도서 안내: (02)737-0695

### 제 1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분	대상	인원	상금
역경상	불전을 기억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	1명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2.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 (지정양식) 1통
- ② 이력서 (명함판 사진 3장) 1통
- ③ 공적서 및 증명자료 (최근 2년 이내 실적자료) 1통

3. 제출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31)980-7719~20 (우편번호 : 415-070)

4. 신청 마감: 2001년 6월 30일

5. 심사 및 발표: 본 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6. 시상일: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일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 『元曉學研究』 제6집에 실릴 논문을 공모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元曉聖師와 大乘佛敎의 一心思想>이라는 주제로 『元曉學研究』 제6집을 기획하면서 "기타 주제"의 일반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논문을 발표할 의사가 있는 분은 <논문요지>를 A4 용지 2매 내외로 작성하시어 2001년 4월 30일 까지 下記の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① 元曉聖師와 관련된 자유주제의 논문 : 총 3~4편  
② 대승불교의 一心思想과 관련된 자유주제의 논문 : 총 1~2편

▷ 원고료: 각 편 당 100만원  
▷ 논문요지 제출 마감일: 2001년 4월 30일  
▷ 논문 마감일: 2001년 10월 31일  
▷ 논문 제출 자격: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  
▷ 논문요지 제출처: E-mail - madhyama@chollian.net (우)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연구실 ☎ 054)770-2105 / ☎ 011-320-4050

元曉學研究院 院長 李道業 合掌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원장실 054)770-2392  
원효학연구원 원장실 054)770-2106  
홈페이지 http://www.wonhyo.org

### 元曉學研究院

제 1315주기 원효대제에 초대합니다  
4월 22일 (일) 오전 10시 / 경주 분황사

###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신직법학교 학인 모집

■ 모집학과: 불전의식과 - 00명 ■ 교육기간: 6개월  
■ 교육내용: 일용의식 - 도량서, 종승,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자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재반의식 - 대령, 관육, 시다령, 점안, 방생 등  
■ 특 강: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교육시간표

'2001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수	목
불전의식과(6개월)	19:00~20:30	19:00~20:30

■ 응시자격

- ① 중헌 중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 ② 재가불자도 청량이 가능한

■ 진명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 ② 승적증명서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 접 수: 2001년 3월 23일(금) ■ 면 집: 2001년 3월 24일(토)

■ 개 강: 2001년 3월 28일(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02-921-3425